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1차)

개최일시	2026. 1. 21(수) 09:30 ~ 14:10	회의장소	진선미관 진관홀																								
참 석 자 (13명)	강보아(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백주현(간호대학 공동대표), 서하연(경영대학 공동대표), 신동희(교무처장), 오민서(학부 부총학생회장), 윤정원(한영회계법인), 이승연(관리처장), 이주연(예산팀장), 이준엽(기획처장), 이창온(총무처장), 장현수(대학원 학생회장), 정예진(학부 총학생회장), 최정아(학생처장)																										
불 참 자 (0명)																											
안 건	1) 2026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예산(안) 심의·의결 2) 2026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 심의·의결 3)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 의결																										
의결사항	[안건 1] 2026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예산(안): 승인 (단위: 억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2026예산</th><th>2025추경</th><th>추경 대비 증감</th></tr> </thead> <tbody> <tr> <td>수입</td><td>10,646</td><td>10,175</td><td>471</td></tr> <tr> <td>지출</td><td>10,646</td><td>10,175</td><td>471</td></tr> </tbody> </table> [안건 2] 2026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 승인 (단위: 억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2026예산</th><th>2025추경</th><th>추경 대비 증감</th></tr> </thead> <tbody> <tr> <td>수입</td><td>4,764</td><td>4,629</td><td>135</td></tr> <tr> <td>지출</td><td>4,764</td><td>4,629</td><td>135</td></tr> </tbody> </table> [안건 3]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 승인			구분	2026예산	2025추경	추경 대비 증감	수입	10,646	10,175	471	지출	10,646	10,175	471	구분	2026예산	2025추경	추경 대비 증감	수입	4,764	4,629	135	지출	4,764	4,629	135
구분	2026예산	2025추경	추경 대비 증감																								
수입	10,646	10,175	471																								
지출	10,646	10,175	471																								
구분	2026예산	2025추경	추경 대비 증감																								
수입	4,764	4,629	135																								
지출	4,764	4,629	135																								
내 용	■ 개회 - 교무처장이 위원장 선출을 제안하며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다. 학부 총학생회장이 업무 유관성을 들어 기획처장이 아닌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다. 교무처장이 위원장으로 추대되는 것을 고사하고, 학부 총학생회장이 먼저 각 위원이 돌아가며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위원장 선출을 제안하다. - 각 위원이 돌아가며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다.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	-----	-----

	- 간호대학 공동대표가 학부 총학생회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다. 기획처장이 복수 후보가 되어 합의와 의결을 통한 위원장 선출을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위원장이 되는 안에 대해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경영대학 공동대표, 간호대학 공동대표 5인이 찬성하고, 기획처장이 위원장이 되는 안에 대해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대학원 학생회장, 외부전문가위원 8인이 찬성하여, 기획처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다. - 위원장이 참석위원 전원이 '위원회 준수사항 및 보안 유지 동의서'를 작성하여 녹음을 개시함을 알리고, 1/27(화) 2026년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을 안내하다. - 예산팀장이 회의록은 규정에 따라 회의 개최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로 공개해야 함을 말하며 회의록 작성일정을 설명하고, 본인 발언에 한해 수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다. - 예산팀장이 위원장과 교직원위원을 대표하여 교무처장, 학생위원을 대표하여 학부 총학생회장을 회의록 간서명을 진행할 대표위원 3인으로 호선할 것을 제안하고 모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다. - 위원장이 총 13명의 위원 중 13명이 참석하여 회의 개의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최하다. ■ 회의내용 - 학부 총학생회장이 2026년 등심위 일정이 예년보다 지연된 이유에 대해 문의하고, 고지서 발급 직전인 시기임에 따라 등록금 책정안이나 예산안을 충분한 심의할 수 있는 일정인지에 대해 문의하다. - 예산팀장이 1월 초에 개최해 온 본교 등심위 일정에 대해 지난해 등심위 학생위원들의 일정 조정 요청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음을 설명하고, 2025 등심위 운영 회차가 대폭 증가하였음을 부연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심위 일정이 너무 초반이면 의견을 수합하기 어렵고 너무 후반이면 결과를 변경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이야기하다. 회의 개최 일시를 정할 때, 학교위원들의 일정을 선수합하여 안을 제공하였는데, 두 번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의 회의 개최 시 네 안을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안은 주 간격을 고려할 때, 2개뿐인 상황으로 학생위원 일정을 먼저 수합하여 고려할 수 없는지 문의하다.

- 예산팀장이 향후 위원회 일정과 관련하여 금일 발언내용을 참고하겠다고 답변하다.

- 위원장이 2025년 5차 등심위 회의 때 순서나 일정 조율에 대한 다양한 논의사항이 있었고 부속병원회계부터 안건으로 상정하자는 제안에 따라 1번 안건으로 부속병원회계 예산(안)을 상정하였음을 설명하며, 첫 번째 안건 심의를 제안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각 처에 전달한 자필호소문과 금일 피켓팅 구호에도 볼 수 있듯이 예산안 심의 전 등록금 책정을 희망함을 언급하다. 우리 대학과 같이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고 등록금 책정안을 이야기하는 대학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공문으로 심의 안건 변경을 요청했으나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음을 이야기하다. 교비회계의 50% 수준의 등록금 수입에 대한 책정없이 학생위원들은 예산안 의결이 불가함을 주장하다.

- 위원장이 이는 교비회계에 대한 이야기로 해당 안건 시 재논의를 요청하며, 먼저 부속병원회계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제안하다.

1. 2026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예산(안) 심의·의결

- 위원장이 부속병원회계 예산 전체 보고 이후 질의응답 진행을 제안하고, 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 전략기획팀장, 예산파트장, 전략기획팀 팀원이 배석하다. 위원장이 2026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전략기획본부장이 의료원 배석인들을 소개하고, 전략기획팀장이 2026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예산 전체 보고 후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임을 답하다.

- 전략기획팀장이 2026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예산(안)을 의료원 및 양병원에 대해 차례로 보고하다.

- 위원장이 2026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문 또는 의견을 요청하다.

- 간호대학 공동대표가 간호대학 학생으로 서울병원이나 목동병원 실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	-----	-----

	습 시 해당 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발언하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추진 현황과 천억 원 규모의 적자에 대해 질의하다. - 전략기획본부장이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위한 주요 전략과 상급종합병원 진입 시 예상 수익 증가에 대해 설명하고, 서울병원 건축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답변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목동병원과 서울병원의 진료비 증액분과 상급병원 여부의 상관관계에 대해 질문하고, 전략기획본부장이 진행 중인 사업 및 진료수가와 연결하여 답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양 병원의 비용 항목 간 차이에 대해 추가 질의하고, 전략기획본부장이 양병원의 특화 부문을 설명하고 이로 인한 차이임을 답하다. - 간호대학 공동대표가 목동병원에서도 의료수익, 기타수익에서 지원금 규모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지원금인지 질의하다. - 전략기획본부장이 목동병원은 상급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으로 중증환자 입원 시 전년도분을 계산해서 지원하였으며, 한꺼번에 지원한 금액을 2025년에는 지원했지만, 2026년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지원금이 감소하였음을 답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유동부채가 461억 원으로 보이는데 향후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고, 학부 총학생회장이 유동부채를 합치면 400억 원 이상으로 보여 향후 대책 여부를 질의하는 것임을 부연하다. - 전략기획팀장이 유동부채와 관련해서는 장비 구매가 있고 실제 리스 비용에 따라 장비 구매 여부가 결정됨을 설명하다. 차입금이 큰 규모이나 계획에 따라서 상환해 나갈 예정으로 무리가 없음을 부연하다. - 위원장이 추가 질의가 없는지 확인하고, 배석한 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 전략기획팀장, 예산파트장, 전략기획팀 팀원에게 이석 가능함을 안내하다. - 위원장이 2026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예산(안) 의결을 제안하여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경영대학 공동대표, 간호대학 공동대표 총 5인이 반대하고,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대학원 학생회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8인이 찬성하여 2026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다.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	-----	-----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진행에 있어 학생위원들이 꾸준히 반대의견을 표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학생위원들이 반대해도 가결되는 구조에 대해 의문을 표하다. 더불어 학생위원들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과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다.

- 위원장이 최대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발언 의사가 있는 위원들은 표시를 해주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교비회계 심의 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다.

- 위원장이 질의 답변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재질의를 통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답하다.

2. 2026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 심의·의결

3.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 의결

- 위원장이 2026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과 부속안건 성격인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을 간략 설명하고, 두 안건 보고 후 질의응답 진행을 안내하다. 예산팀장에게 두 안건에 대해 보고를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2026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의 증감요인을 상세히 보고하고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을 보고하다.

- 위원장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사전에 총학생회에서 제안한 학생 요구안 등 자유롭게 발언을 요청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현 상황에서 예산안 심의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교비회계의 50% 정도가 등록금 수입인데 만오천 이화인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등록금 책정 전 예산안 심의에 대해 의문을 표하다. 회의 순서 변경을 제안하고 불가할 시 교비회계 예산안을 부결하고 2차 회의에서 등록금 책정안과 함께 심의하는 것을 제안하다.

- 학생처장이 회의 순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전일 미팅에서 등심위 심의 안건 순서 변경에 대해 올해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타교 사례처럼 변경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변하였음을 이야기하다. 금년도는 바로 반영이 어려우니, 내년도부터 절차와 순서를 논의할 추가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	-----	-----

	- 위원장이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발언함을 부연하며 학생위원들의 문제 제기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나, 이미 회의 일시와 안건이 법적 요건에 맞춰 모든 위원들에게 전달되었고 현재 1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학생위원들의 회의 순서 변경 요구의 기대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절차의 문제도 당연히 있지만, 학생의 등록금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학생의 등록금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등록금을 책정한 후에 등록금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하다. 일단 본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이후에 등록금 인상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추경은 결산 수준으로 편성하여 예산만큼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였음을 이야기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므로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중간 개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QS 평가뿐만 아니라 중앙일보 대학평가도 주요 고려사항임을 감안할 때, 학생친화적인 대학이라는 것이 언론에 알려지는 게 중요하므로, 학생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확대 보도될 경우 학교 이미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4년제 사립대학 중 11개가 현재 등록금 책정 후 예산안을 심의하는 형태로 진행됨을 주장하며, 예산안부터 심의하는 것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이해가 된다고 언급하다. - 예산팀장이 대학의 예산 편성 절차와 승인 절차를 설명하고 등심위원의 결과를 바로 예산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임을 부연하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먼저 진행해 온 배경은 우리 대학 예산을 먼저 살펴보고 등록금 책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위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임을 설명하다. 특히 지난 학생위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일정을 계획하고 회차를 확대한 것으로 결코 등록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가 아님을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하고자 하는데, 등록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음을 들어 2026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이 동결안으로 편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인상분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고려하지 않고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표하다. - 예산팀장이 추가적 수입이 발생하면 추경 편성을 통해 반영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지난해 등록금 인상분에 대하여 활용계획에 따라 집행했음을 추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경예산안 의결 시 보고하였음을 부연하다. 등심위 심의 및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은 인상률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책정(안) 사전 자료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최저임금 등의 자료가 제시되어, 2.95% 인상이라는 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등록금 책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예산을 고려할 텐데 이를 토대로 등록금 책정(안) 토론했으면서 등록금 책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예산안 의결이 되고 나면 별 자료 없이 등록금 책정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다. 추경 예산안도 인상을 상정하고 편성하는 과정이 적합하지 않기에, 현시점은 등록금 책정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예산안 결정을 하기에 논의시간이 부족하다고 발언하다. - 학생처장이 회의 자료만으로 부족하다면 설명 자료를 보완하고, 총학생회 의견과 같이 차년도에는 요구사항이 예산에 반영되는 과정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자꾸 차년을 언급하는데 지난 번 회의에 참관했을 때도 계속 개선 논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대표자들의 임기가 1년으로 매순간이 절실한 상황임을 언급하다. 직선제 선출로 학생 대표의 명분이 있는데 차년으로 넘기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음을 주장하며, 등심위 구조는 아직도 개선할 게 많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원론적인 관점에서 등록금을 먼저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현실적 관점에서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전에 등록금을 책정하고 책정안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다. 학생 요구안이 반영될 수 있게 실무협의체를 통해 시설 개선 등 의견 수렴의 절차를 이미 마련하였고, 25학년도 등록금 책정 시에도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학생 의사가 반영된 집행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하고 인상을 의결한 선례가 있음을 발언하다. 금년도 동일한 방식의 논의를 포함하여 추경 예산 반영과 같은 현실적인 방식을 통해서도 변경의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며, 등록금 책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고정된 원칙은 아님을 부연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실무진의 입장에서 안건 순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바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등록금 인상을 통보한 후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닌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법적으로 등록금 인상 상한이 12월 말에 확정되고, 추경과 당초 예산 편성이 10월부터 진행되는 점과 각종 예산안 승인을 위한 후속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	-----	-----

	절차 등을 고려할 경우, 안건 순서를 변경하여도 인상분을 포함한 예산안을 편성하기 어려움을 재차 설명하다. - 위원장이 예산안 변동 없이 순서만 변경하는 안과 등록금 책정 후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과 지출 모두에 반영하는 안 중 무엇을 상정하기를 원하는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결과가 반영된 예산안을 희망했음을 밝히며, 등록금 책정 시 인상분 활용계획이나 동결 시 어떤 부분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지 등의 자료를 고려하여야 하며, 적어도 수입에는 등록금 인상분이 정확히 반영된 예산안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고지서 발급 직전으로 등심위 일정이 설정된 부분에 대해 의문을 표하다. - 예산팀장이 이전 학생위원들께서 임기 시작이 1월인데 1월 초 진행의 어려움과 회의와 회의 간 일주일 이상 시차를 두자는 요구안을 수용한 결과임을 설명하다. 회의 개최 가능 일정을 거의 한 달 전에 문의한 부분임도 언급하다. 일정에 대한 학생위원들의 제안 내용을 추후 검토할 예정이며, 당장 금년도 진행은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등심위 회의자료와 일시, 장소, 안건 안내 등의 고지 일정이 별도 존재함을 발언하다. 예전에는 당일 회의자료 열람 시간을 가지며 사전 설명을 진행하였으나, 지난해 학생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사전 열람 및 설명 대신 2~3일 전에 메일로 추가 회의 자료를 송부하기로 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음을 부연하다. - 교무처장이 매년 변경되는 위원들로 인한 변동성임을 지적하며, 과거에는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나 문제 제기가 없었음을 설명하다. 회의 일정 고지와 안건 안내 등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가 있고 이를 당장 금년부터 변경하지 않고 차년으로 미루자는 게 아니라 적합한 제안을 반영하여 또 변경될 예정임을 설명하다. 위원 변경 시기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안임을 부연하다. - 위원장이 학생위원의 주장은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등록금 심의가 먼저라는 이야기이고,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계수조정 소위원회 등을 통해 예산을 조정한 이후 확정된 예산을 심의하자는 주장으로 이해됨을 발언하다. 두 번째 안은 현실적인 점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장 예산 변경안을 만들거나 회의를 운영 절차를 변경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답하다. 제도적 절차상에서 요구안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추후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금년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을 부연하다. - 간호대학 공동대표가 타 대학의 사례라고 무조건 따라야 하지 않거나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이며, 등록금 책정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후 예산안 심의에 대한 긍정적인 취지에 공감한다면 추가 자료 제공을 이야기하였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예산안 부결 후 다음 회의 재상정을 제안하다. - 위원장이 부결한 안건을 다음 회의에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하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를 언급하며 안건 상정 절차에 대해 총무처장에게 질의하다. - 총무처장이 법을 확인해서 검토하여야 하며, 안건 상정일과 통보일 등의 절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을 답하다. - 위원장이 5차 등심위 회의를 통해 시기에 대한 의견을 비롯하여 회차나 안건, 안건 순서 등 학생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음을 발언하며, 운영에 대한 절차는 향후 함께 논의해 가야 할 내용임을 이야기하다. 학생위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닌 절차적 또는 제도적 고려사항으로 인하여 금일 안건을 부결하거나 안건 순서 변경,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당장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답하다. - 교무처장이 2025년 운영 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오래 논의하고자 여러 회차를 운영했음을 이야기하며, 그 어느 때보다 학생 의견을 경청한 해였음을 설명하다. 2026년 운영과정에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논의할 것임을 부연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2025년 이례적으로 회의가 많이 개최된 것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절차적으로 부결이 어렵다고 하면 결국 가결만 가능한 부분이 아닌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등심위는 등록금 책정과 예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학생위원을 포함한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답하다. 2차 회의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회의 자료와 안건 안내를 진행하였음을 언급하다. 등록금 인상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학생위원분들이 주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고려하여, 다음 회의와 이번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추가 설명이나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답하다.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안건 부결 후 재상정하여 다시 논의하는 형태는 적합하지 않음을 부연하다. - 위원장이 예산안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여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등록금 인상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2차 회의에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발언하다. 위원들의 추가 질의와 의견을 요청하다.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위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론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취지에 공감한다면 모든 위원이 함께 반대 의사를 표해주십사 요청하였으나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하다. - 총무처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의 이행을 위해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개회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전까지 안건 통지가 필요하나, 2차 등심위가 27일이면 금일 21일로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7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결 위배하는 형태로 부결시킨 후 다음 회의에서 안건을 재상정하게 되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고지서 발행 기간으로 인해 일정이 촉박한 것으로 아는데 추가 개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지난해 사례를 들어 등심위 이후 학생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총학생회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학생요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을 설명하다. - 위원장이 안건 상정 절차가 존재하고 절차에 따라 회의 진행하는 것이 위원장의 책무임을 언급하며, 질의응답을 포함한 심의 이후에 상정안을 표결에 부쳐 정리하는 안을 제안하다. - 간호대학 공동대표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항에 의거하여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을 들어 등록금 책정은 고지서 발행으로 인해 시급하나 예산안 의결도 시급한 것인지 질의하다. 위원회 성격에 따라 필수 표결의 상황이 아니라면 이월은 문제가 없는 것이 맞는지 추가 질의하다. - 위원장이 의견으로 수렴하여 위원들의 판단 시 부결 의사 표명 또는 가결 의사 표명 여부는 표결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자 함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고지서 마감 기한에 따라 추가 개회 가능성을 재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장학금 일정도 고려하여야 하여 추가 개회가 어려움을 답하다. - 위원장이 향후 일정 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하고, 금일은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2026년 등심위 1차 제안 안건에 대해 질문 또는 의견을 나누기를 제안하다. 안건에 대해 예산팀장이 항목별로 내용을 설명하였고 함께 학생위원들이 요구한 36개 항목에 대해서 전 기관들의 자료를 취합해서 전달하였으나, 서면 요청자료임에 따라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잘 전달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한 항목이나 추가 질의 건이 있다면 제안을 요청하다. 2차 등록금 책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면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자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함을 부연하며, 1차 등심위 안건에 대한 추가 질의를 요청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2026년 예산(안)에 인건비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며, 2025년 7차 등심위에서도 대학원 등록금 인상과 관련하여 조교 장학금 확대가 2학기부터 반영될 것임을 이야기하였는데 어느 부분에 반영되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조교 장학금 확대는 장학금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자료의 조교인건비는 직위가 조교인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임을 설명하고, 위원장이 법적으로 조교라고 지칭되는 현재 교내 10여명 정도 교육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별도 직위가 있음을 부연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대학원 장학금 신설 등으로 교내 장학금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박사과정 전액 장학금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추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2학기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1학기분만 고려하여 편성하였음을 답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장학금 계정의 감소분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교외 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관련되어 있고, 국가장학금은 가계곤란 학생의 신청을 통해 학교의 수입으로 잡혀서 지급되는 형태로 운영되며, 학교 재원이 아님에 따라 수입과 지출 모두에 최소 예상치로 반영됨을 설명하다. - 위원장이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질의를 요청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2차 회의 때 예산 심의와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싶다는 것이 법적으로 저촉되는 상황인지를 질의하다. - 위원장이 의결 순서와 무관하게 수정되어진 내용을 예산안에 반영하여 재상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함을 설명하고 순서의 변화만을 목적으로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	-----	-----

	하는 것인지 확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실무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차년도 개선을 위해서는 절차상 순서라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순서 정도는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안건을 부결하여 학생위원들의 취지에 공감함을 표현하는 것은 적절해보이지 않으며, 해당 의사를 반영하여 내용적 찬반과 절차적 찬반을 포함한 의결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다. 다른 위원들도 의결과정에서 개별적 의사 표현이 가능함을 부연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자료를 작성하는 학교위원의 입장이지, 일방적으로 자료를 수신하는 학생위원의 입장에서는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취지에 공감한다고 하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셔야 하는 게 아닌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정보 비대칭의 문제는 순서 변경과는 다른 문제로 보이며, 시간과 정보 제공에 대한 절차를 지난 번 구조 등심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반영하여 진행하는 것임을 답하며, 타교의 경우 같은 회차 또는 연속 회차로 운영할 것으로 보이나 우리의 경우에는 함께 논의할 경우 시간이 과하게 소요되니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산안과 등록금 책정안을 별도 안건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논의가 있었음을 설명하다. 새로운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후 논의 진행은 가능하나, 이번 회차에 회의 순서를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정보 비대칭 문제에 대해서는 2회차 회의 내 충분히 논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절차적 효율성이 학생의 권익보다 우선일 수 없음을 주장하며, 이 의결의 부적절함을 주장하였으나 불가하다고만 답변하고 법률상 위배되는 요인이 있다고 하니 교비회계 안건만이라도 이 회의 내 의결이 어려우니 예산안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절차상으로 순서를 바꾸자는 내용임을 이야기하다. - 위원장이 해당 내용은 안건 의결 절차 진행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고 현재는 심의를 위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제안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원금보존기금 중에서 연구기금은 임의연구기금 자체가 거의 없고 예산상으로 전액 인출을 하는 걸로 보여 원금보존기금 미인출 시 연구기금 인출이 어려운 구조로 보이는데, 원금보존기금을 인출하는 원칙에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대한 추가 설명을 문의하다. 추가로 연구비 예산과 연구기금 인출액 간의 차이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우리 대학이 QS 등급을 높이고 연구중심대학 발돋움하기 위해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으로, 연구 투자는 연구비 계정뿐만 아니라 우수연구자를 모시는 인건비와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비도 있음을 답하다. 교내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재원으로 연구기금을 인출하여 활용하였고 Ewha Global Excellence Program으로 연구 진흥을 위한 교내 대형 연구 과제를 시작하여 해당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부연하다. 교내 주요 연구지원사업을 연구기금으로 인출해서 추진하고 있고 임의연구기금은 모두 소진하여 원금보존연구기금 인출밖에 할 수 없음을 부연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연구기금과 관련하여 외부에서 재원이 마련되어 적립되는 게 거의 없는 구조로 보이며, 이자수익 발생분과 원금보존기금을 계속 사용하는 형태로 운영됨을 언급하다. 원금보존기금의 감소분이 교육경쟁력강화기금인데 임의기금에 있던 해당 기금 전체를 다른 기금으로 이관한 것인지 아니면 전액 인출한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전액 인출한 것임을 답하며,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기금 용도 제한이 엄격히 이루어짐에 따라 이자수익을 해당 목적 기금에 적립한 후 인출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우리 대학 기금 6,700억 원 수준이 커 보이지만 실제 대학 운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부족한 실정임을 설명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교육경쟁력강화기금은 사용 항목에 제한이 없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학교 발전에 부합하는 형태면 사용이 가능함을 답하다. - 위원장이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질의를 요청하다. - 간호대학 공동대표가 2026년 예산에 공간 재배정 비용이 포함되었다면 재건축 시행 건물이 있는 건지 질의하고 공간 재배정 비용의 사용과 공간 확보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재건축 관련해서는 헬렌관 재건축과 생활환경관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고,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설계 진행 중인 상황임을 설명하며, 헬렌관 내 간호대학의 경우에는 어린이연구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부분 이전한 사례를 언급하다. 공간 확보와 관련하여 재건축이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사전 준비과정에 필요한 예산임을 답하다. 이전을 위한 최소의 비용으로 예산을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	-----	-----

	편성했는데 좀 더 구체화되면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변동할 수 있는 부분임을 부연하다. - 간호대학 공동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배정하는지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는지 문의하다. - 예산팀장이 현재로서는 진행사항을 살펴보고 계속 예산에 반영하고자 함을 답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수입 총괄표를 보면 2025년 추경 대비 2026년 예산의 등록금 수입만 늘어나고 다른 부분은 감소하여 전년도 학교 재정 어려움을 호소하여 등록금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자료상으로는 학교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2025학년도 재정이 이례적으로 늘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학교 측의 재정 확보 노력이나 계획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수입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단기 수강료나 학생 편의 사업은 25년 예산 대비 추경에 크게 노력하여 증액한 부분이 있으며, 예산상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계상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예년처럼 감액 편성한 부분임을 설명하다. 각 수익기관의 노력을 설명하고 전입금 감소는 산학협력단 전입금이며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대학 연구 지원을 위한 추가 투자 확대가 있기 때문에 전입금 수입은 줄지만 실질적 지원은 증가 중임을 언급하다. 교육부대수입은 다소 증가를 했고, 잡수입은 예외적인 경우였으며, 이자수익은 법적인 기준에 맞춰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할 수 있는 제한이 있어, 비당을 통해 최고 금리에 투자하지만 예치 시점 금리가 낮아진 부분이 예산에 반영됨을 이야기하다. 최근 금융 및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 향후 수입 증가 여지가 있음을 설명하다. 확정되지 않은 수입을 반영하면 지출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로 인해 수입 과대 편성이 적절하지 않음을 부연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연구학생경비에 교외 장학금과 국가장학금 등 국고 지원 장학금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교내 장학금은 대학원 장학금 증액분도 고려하였을 때, 학부 장학금은 30억 원 가량 감소한 것이 아닌지와 작년 등록금 인상분으로 2유형 장학금을 보전하였는데 인상을 고려해서 국가장학금 2유형을 편성하지 않은 건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국가장학금 2유형 국고보조금 수입 및 지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동결을 전제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알고 있는데 동결을 전제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한 게 아닌지 질의하다.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예산팀장이 수입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했음을 답하다. - 위원장이 국가장학금 2유형은 정부에서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고 수혜 금액에 대해서 등록금 인상안 등 불확실한 요소가 있어 확정되지 않은 수입 항목은 편성하지 않음을 부연하다. 당초 예산 편성 시는 확정되어진 수입에 한해 편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산 편성 원칙이며, 증액될 경우 대응되는 사업 지출이 있기 때문에 수입-지출이 동일함을 설명하고 등록금 인상 여부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 아님을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024년 우리 대학의 국가장학금 2유형 수혜 실적이 29.6억 원으로 작년에는 인상예 따라 수혜하지 못하였음을 언급하며, 30억 원 증분 중 20억 원을 보전하였는데 10억 원 정도의 차이 발생 사유에 대해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가계곤란 장학금은 정부의 요율표에 따라 구간별로 모두 지원이 이루어지며, 작년에 우리 대학의 금액이 낮았던 이유는 8분위까지 지급했는데 예외적으로 9분위까지 지급한 부분으로 실제 수혜 대상 학생은 모두 수혜함을 설명하다. 추가로 금액 감소 이유는 휴복학 등으로 인해 매년마다 장학금은 등록금 수입 대비로 이루어져 수혜 대상 학생 중 제외된 경우는 없었음을 부연하며, 수혜 대상 학생 수 감소로 인함을 답하다. - 예산팀장이 2024년에만 국가장학금 2유형에 국가 예산이 추가 투입된 부분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우리 대학은 2025학년도에 이화복지 장학금을 3년 평균 수준 이상 집행하였음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교육부장관 면담도 진행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이해하고 있음을 답하며, 변경되는 부분이 크다 보니 확인을 위한 질의였음을 설명하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가계곤란 학생이 학업에 집중하게 하려는 목적의 장학금인데 등록금 인상분으로 장학금 지급과 투자가 이루어진 게 아닌지 문의하다. 학생의 부담은 2배인 상황임을 지적하고 학생 요구안 발제를 희망하다. - 위원장이 학부 총학생회장의 발제를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짧은 조사기간과 방학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2300여 명의 학생이 설문에 참여해주었으며, 단위별 요구안은 시설에 대한 내용이 많음을 언급하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이화인 요구안 전반의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고, 동의 여부와 체감 여부를 질의하였음을 부연하다. 이화인 요구안에 대해서 거의 모든 문항에서 90% 이상 동의 결과가 나타났고, 등록금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인상 반대 요구에 대해 97.7%가 동의하였음을 설명하다. 등록금 인상을 통한 투자에 대해 학생들의 체감이 낮고 학생들의 희망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을 발언하며 등록금 동결을 주장하다. 또한 등록금 인상 이후 추가 후속 협의회도 진행하였으나,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개선 또는 변경 체감이 낮음을 설명하며, 부담도는 높고 개선사항은 체감되지 않는 형태임을 부연하다. 추가로 학생 요구안은 유사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예산안 책정 시 고려되었으리라 생각하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수입의 50%에 달하므로 학생들의 요구안 반영 여부에 대해 분명히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다. 이에 학생들은 절대 등록금 인상은 찬성할 수 없는 입장임을 강조하다. - 위원장이 학생 요구조사 실시에 감사를 표하며 학생들의 요구가 학생을 위한 학교 운영 전반에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답하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생 의사를 수렴하고자 하며, 다양한 현실적 우선순위도 고려해야 하지만 학생들이 체감하는 우선순위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함을 부연하다. - 간호대학 공동대표가 2026학년도 예산안에 인원 확대 및 요율 인상 에 따라 증액 부분이 있는데 최근 3년간 우리 법인 설치학교 지원률에 따르면 62.7%로, 증액분은 학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법인의 전입금 계정은 수입에 해당하고 지출 계정은 보수에 포함되어 있음을 답하며, 우리 법인은 4대 보험 중 사립학교법에서 의무화된 교직원 사학연금분을 전액 부담하여 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장학기금이 전체 기금에 비해 작은 비중인 점과 건축기금의 비중이 큰 상황에서 기부자의 의사가 반영되겠지만 학교의 기금용도 변경 의사 여부와 이에 대한 시도 유무를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학교사업 임의장학기금 64억 원뿐만 아니라 원금보존장학기금 1,832억 원이 있음을 답하고, 건축기금은 재건축 및 각종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에 활용하는 중요한 기금이며, 재건축을 위한 기부금 모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장학기금에 부족한 부분이 없으면 왜 등록금 인상분을 장학금에 사용하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지난 학생위원들과 논의한 등록금 인상분 활용계획에 의한 것이며, 계획사항 외에도 여러 재원을 마련하여 승강기 교체와 신세계관 등 냉난방 교체, 노후환경개선 등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등 장학금과 시설 투자를 비롯한 여러 지원 예산을 집행했다고 설명하다.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	-----	-----

	- 위원장이 2025학년도의 경우, 예금 이자 수익 등 추가 수입분을 충분히 사용하여 학교 발전 및 학생 지원에 활용한 부분이 있고 등록금 인상 증가분에 대한 활용계획도 2차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와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부연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국가로부터 장학금 30억 원을 수혜하는 것과 학생들에게 40억 원을 부과하는 것을 두고 생각하면 당연히 학생 입장에서는 국가장학금 30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발언하다. 학교 입장에서도 학생들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언급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등록금 인상분으로 진행한 냉난방시설 교체에 따른 냉난방비 절감 발생 여부와 교체 대상 선별 기준에 대해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냉난방뿐 아니라 전구도 LED로 변경하면서 전기 용량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정확히 얼마나 절감되는지 당장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설명하고, 공공요금의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 눈에 띄게 체감되기는 불확실함을 답하다. 오래된 순으로 선별하지만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음을 부연하다. - 위원장이 에너지 비용 효율화의 관점에서 지속적 교체가 있어야 현재 효율이 유지가 되는 것이며, 교체 속도에 따라 효율화가 상승하므로 에너지 효율화 관점도 모니터링하고 있고 냉난방 교체 우선순위도 함께 결정하고 있음을 답하다. - 간호대학 공동대표가 단대별 요구사항에 시설 노후화 개선 요구가 있는데 냉난방 개선 사업 진행할 때 단대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추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교육관B동, 중앙도서관, 종과C동처럼 개선의 순서가 있는데 이는 내구연한에 근거하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하므로 내구연한에 맞춰 선정하고 있음을 답하다. 계획과 다르게 회생이 불가할 경우 순서가 변경됨을 부연하다. - 위원장이 추가 질의 여부를 확인하고 폐회 예정 시간보다 지연되는 일정에 따라 질의응답을 축약하여 진행하기를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창립 140주년 관련 행사 비용의 사용처 계획을 질의하다.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예산팀장이 학교 홈페이지 전면 개편, 역사 편찬 예산과 기존 대학 내 행사를 140주년 행사로 확대하여 진행하는 부분도 있음을 설명하다. - 학생처장이 140주년 홈페이지에 고지되어 있는 여러 행사들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답하다. - 교무처장이 140주년 기념행사는 우리 대학의 품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부금 모금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 타 대학도 기념 행사를 통해 거액의 기부금 모금 사례가 있었음을 부연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025학년도의 일시적 호조임을 이야기하였는데 140주년 행사처럼 등록금 인상이 아닌 기부금 모금을 통해 재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없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회계적 용어로 보수적 편성을 언급하였는데, 재원 마련을 위한 학교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5학년도 추경이 예년에 비해 굉장히 크게 증가한 부분을 감안하여 2025학년도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답하다. 다만 수입 예산 편성을 하면 지출 예산 편성도 해야 하고 수입 증가분이 불확실함에 따라 지출 편성의 부담이 발생하며,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용도가 제한되어 버리면 학교 운영비로 사용이 불가함을 부연하다. 당연히 학교 재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예산 편성상 반영이 어려움을 설명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고시반 예산 현황을 확인하였는데 2025년 추경 예산보다 2026년 당초 예산이 적게 편성된 이유를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고시반 예산은 교비에서 대부분 집행을 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이 있으며,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수혜 여부가 불투명하여 제외된 부분이 있고, 경상적인 부분이 아닌 공인 회계사반 책결상 노후화에 따른 예산 배정과 같이 기반 투자분이 추경에 반영되었음을 답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법전원 준비반은 예산으로 반영되는지 추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고시반 지원 예산을 매년 수억 원 편성하고 있으며, 고시반 좌석 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다. 법전원 준비반 마련 요구가 있었고, 현재 시범운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함을 답변하다.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고시반 예산 중 지도교수비/인건비 증액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각 고시반의 요구사항과 지원내용이 상이하며, 인재개발원에서 전체적인 취창업 지원 업무를 하며 아울러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어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배정함을 안내하다. - 간호대학 공동대표가 단위사업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기금은 인출분 활용을 예산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예산안으로는 반영이 제한적이고 추경예산안을 보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음을 답하다. - 위원장이 각 기관의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인출동의서를 제출해야 예산 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단위기관의 기금 사용은 본부에서 모두 배정할 수 없음을 부연하다. - 예산팀장이 고가의 연구 기자재 교체를 위해 연구기관에서 수년간 기금을 적립한 후 인출하여 집행한 사례를 설명하다. - 위원장이 효율적 진행을 위해 추가 질의 양에 대해 문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추가 질의사항이 아직 많은데 모든 질의응답이 어려운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상반기 중에 학생 요구안을 접수하고 당해연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며 여러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한 내용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음을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은 충분한 해설 후 의결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폐회시간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으며, 2차 등심위 전에 한 번 더 만나서 논의하고 충분한 회의 이후 2차 회의를 예산안과 함께 진행하자는 의견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잉여금 처리 원칙만 의결하고 교비회계 예산안을 2차 회의로 이월하는 것을 제안하다. - 위원장이 진행에 대해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다.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교무처장이 질의응답과 관련하여 추가 예상 갯수에 대해 문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아직 많은 질문이 남아있음을 답하다. - 위원장이 등심위는 위원회 성격상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발언하다. 가부 판단이 의무인 기관인 점에서 이번 안건에 대해 일정 시간 심의가 진행된 이후에는 상정 절차를 진행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며, 내용상의 반대 의견이나 절차상의 반대 의견은 어느 정도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적절한 심의 시간 이후에는 의결 절차 진행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위원들이 반대하여도 가결될 수 있는 위원회 구조가 비민주적인 상황이라고 보여 학생위원의 심의가 더 필요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발언하며, 내용상의 의견이 아니라 구조상으로 지켜져야 할 부분이므로 변경이 요망된다고 주장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심의 시간이 보장되어야 의결이 가능함에 따라 예산안에 대해 총체적 이해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결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등록금 심의의 폐회시간을 정해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발언하다. 심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보지 않아 의결이 불가하며, 등록금 책정안까지 자료를 확인한 상태에서 의결 진행을 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잉여금 처리 원칙을 먼저 의결하고 다음 회의에서 예산안 의결 진행을 제안하다. - 위원장이 현재 심의과정에서 불충분한 시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의결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3번 안건 의결 후 2번 안건은 회차 변경 후 재상정하자는 의견으로 보이며, 이번 회기 내 안건 재상정에 대해 표결을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이미 논의를 진행한 상태에서 동일 내용을 다음 회차에 재상정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발언하다. 또한 내용 심의가 충분하지 않아 의결이 어렵다는 점은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2차 회의에서 논의가 가능하고 변경 및 수정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여러 채널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추경 예산 편성 반영이 가능함을 답변하다. 해당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의결 반대 의견을 표한다면 절차 변경을 진행하고자 하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 회차에서 그대로 진행하고자 하면 진행하고, 변경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차 후에 논의가 가능함을 부연하다. 자료 제공 요청이나 사전 열람 자료에 대한 개선 논의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발언하며, 13분의 위원들과 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논의를 제안하다. - 총무처장이 예산안 안건에 대해 부결하고 2차 회의 이후 일정으로 예산안 의결을 진행하자는 의견인지, 의결을 하지 않고 동일한 예산안 안건에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대해 의결만 이월하고자 하는 부분인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이상적인 부분은 순서를 변경하여 변경된 예산안을 심의 및 의결하는 것이나, 아직 심의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표결을 미루는 것을 요청하다. - 위원장이 이번 안건을 오늘 상정할지 연기할지 위원들의 의사표시를 요청하다. 오늘 논의가 부족하더라도 절차상 의결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수라면 의결을 진행하고자 함을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금일 회의는 9:30~12:00 예정으로 사전 고지되었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계획된 안건의 논의시간을 예상할 수 있었음을 부연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공문을 통해 심의시간이 부족하므로 폐회시간 상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한 바 있고 위원회 성격상 학생위원들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함에 따라 인정하기 어려운 의견임을 발언하다. - 위원장이 이번 안건의 의결 여부에 대해 위원들의 의사표시를 제안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해당 내용을 투표로 부칠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며, 타 대학들도 간담회 진행 및 재정 설명회를 통해 등심위 전 사전 논의를 진행하거나 1차 진행 시 논의 안건을 충분히 보장하는 식으로 운영됨을 설명하다. 논의 취지를 이해했으니 다음부터 반영하자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거나 교비회계 예산안과 등록금 책정안을 함께 논의하기를 제안하다. 이는 예산안 변경이 아니고 순서를 바꾸는 형태가 아니어도 절차적 개선을 희망함을 주장하다. - 학생처장이 학교 차원에서 실무부서가 타 대학의 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타 대학 사정에 의해 변형된 부분인지 등 확인 절차가 소요되며, 회의 내 결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간담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공문으로 사전에 제안한 부분임을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결론적으로는 순서 변경 희망을 차치하고 심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하다. 다시 예산안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가 끝나지 않은 안건을 다음 회차로 이월해달라는 것임을 부연하다.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	-----	-----

	- 예산팀장이 2차 회의가 27일에 진행될 예정이고, 등심위 회의는 목적을 가지고 의결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전별 시간 배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설명하다.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예산 자료 검토가 필요하므로, 1차 회의자료와 사전 요구 자료, 학생 요구안 설문 조사 자료, 2차 회의 자료 모두 비치하여 논의 중에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지 않았는데 의결할 것인지 재차 질의하다. - 위원장이 제한된 시간 내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수렴하는 것이 합리적인 회의 진행으로 보이며, 등록금 책정 후 예산안 반영이 어려우니 예산안 변경없이 동일 내용으로 재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므로 금일 의결하고 다음번 회의에 부족한 내용을 심도 있게 추가 질의 응답하는 것을 제안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의결을 먼저 하고 심의를 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다. - 위원장이 제안내용이 금일 상정 안전에 대해 의결하지 않고 동일 안전을 2차 회의 때 재상정하겠다는 것인지 확인하다. 동일 안전에 대해 금일 의결할 것인지 2차 회의 때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의결하는 것의 실질적 차이점을 재질의하다. 이를 확인한 후 다른 위원들의 의사 판단을 구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의결을 2차 회의에 진행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의문을 표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시간 부족에 대해 학생위원들은 3시간 반 회의 시간을 동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정된 것인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 속성상 의결기관이고 위원회 논의사항에 대한 가부 판단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무한한 심의가 불가하기에 당초 일정 수합 시 타 일정을 고려하여 9:30~12:00로 시간을 설정하였음을 부연하다. 의결에 필수적인 질의응답을 재제안하다. - 교무처장이 이전에 11시간 30분 가까이 회의를 진행한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추가적으로 가부 판단에 결정적인 질문을 요청하다. 무한정한 회의가 많지 않고 결과에 논의사항이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도 많음을 부연하다. 효율성과 함께 충분한 논의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로, 결정적인 질문 위주로 질의응답하는 형태를 희망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심의에 필수적인 질문만을 요청하는 것은 원활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느껴지고 등심위 구조적 문제를 왜 학생위원에게 전가하는지 항의하다. - 위원장이 안건 심의에 필요한 추가 질의를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시간 부족으로 인한 압박감에 대해 설명하고,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에 따른 30억 증가분이 변동한 각각 요인을 문의하다. - 예산팀장이 의과대학 정상운영과 외국인 유학생들 등 재학생수 확대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입학생 증가로 인한 누적 효과를 확인하다. - 간호대학 공동대표가 기숙사비 지출부에 건축기금 전출금과 관련하여 건축기금의 성격에 대해 질의하고, 학생 요구안 중 기숙사생 생활 개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기숙사비는 기숙사 운영비로 사용되고, 기숙사의 건축기금은 감가상각분 적립임을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기숙사 예산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I-House A동과 B동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시설 수준이 같아져서 A동과 B동, C동을 동일 단가로 편성하여 증가하였음을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임의기금에서 보수 관련 거액 인출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인출 절차를 문의하다. - 예산팀장이 교원 및 직원 인건비가 등록금 수입으로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기금 인출 예정임을 답하다. 덧붙여 원금보존기금 인출분은 동일 목적 임의기금으로 이관한 후 인출하여 사용해야 함을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예산과 총장 공약사항을 보아도 우수교원 채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TO가 증가하여도 총원 후 변동되는 인력이 많을 텐데 교원 및 직원 인건비 증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질의하다.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예산팀장이 해피펀드와 같이 학생 관련 운영 목적 사용 중인 기금을 비롯하여 특정한 목적으로 적립된 기금은 적립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을 설명하며, 특정목적기금 중 보수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자료로 제시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이화새시대발전기금에서 가장 많이 인출하는 사유를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학교 발전 사업을 위해 사용 가능한 기금이기 때문임을 설명하며, 사용 가능한 임의기금을 다 인출하고 부족하여 원금보존기금을 인출하는 상황임을 부연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시설관리비 상의 공간 재배정 비용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공간 재배정은 재건축 계획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미편성 시 사용이 불가하여 최소 예상 규모를 편성해 둔 사안임을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들이 재건축 시 기존 사용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유관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 기간 동안 협소하더라도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다. 소요되는 공사성 예산은 편성되었음을 부연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관리운영비는 학교 행정에 사용되는 금액으로 인식되고 장학금은 학생 관련 예산으로 인식되는데 관리운영비는 증가하고 장학금은 감소하여 학생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 예산안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장학금 감소는 국가장학금 감소로 국고보조금 수입이 확정적이지 않아서 보수적 편성한 것이므로 장학금 예산을 감액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답변하다. - 위원장이 연구학생경비가 2025년 예산 대비 2026년 예산이 증액되었음을 부연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이나 국가장학금 등 추가 수입분을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형태임을 설명하다. 작년 예산 수준 편성이며, 수입이 늘어나면 당연히 증액하는 부분임을 답하다.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보수적 예산 편성에 대해 내용을 질의하다. 예금 이자의 감액 편성에 대해 문의하다. - 예산팀장이 운용 기금 6천억 원을 3% 예금 예치할 경우 180억 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할 수 있음을 예시로 하여 추경에는 실적 상품 운용을 통해 이자수입 확대가 가능하였음을 재차 설명하다. 또한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는 해당 기금에 적립해야 하며, 해당 기금 목적에만 인출하여 활용할 수 있음을 부연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실적 상품은 원금손실도 가능한 게 맞는지 확인하다. - 위원장이 실적 상품 총액 대비인지 개별 상품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실적 상품 투자액은 전체 자금의 30% 정도이고 이 중 70% 가량을 OCIO로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중 원금손실 가능성을 5% 이하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개별 상품은 매우 제한적임을 답변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실적 배당 상품으로 예상 목표 수익률 변동에 따라 예산안은 보수적으로 추계해서 잡는 부분임을 공감하며, 작년의 경우에는 한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1등이었으므로 실적이 좋았지만 올해는 미국 시장의 영향 등 변수가 있어 보수적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음에 동의하고 과거에 비해 금리 상황이 좋지 않음에 대해 설명하다. - 위원장이 매주 0.1%를 올리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위험 부담을 철저히 계산하여 손실률을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률 0.1% 증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연하다. 아울러 주식 시장 예측은 불가하므로 올해의 경우 수익률 감소의 여지가 있음을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교 재정의 발전 요소가 있었는데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호조가 있는데 등록금 인상안을 2.95%로 높게 책정한 부분에 대해 의문을 표하다. - 간호대학 공동대표가 공간대여 외 학생 자치활동과 관련하여 필요시 교비 지원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정목적기금 중 학생 지원 목적 해피펀드 기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해피펀드 기금은 동창분들에게 소액 기부를 받아서 학생처에서 학생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답하다.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학생처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와 학생상담센터 등에 활용됨을 부연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이화 과선교 관련 예산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이화 과선교에 대해 설명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생활환경관이나 헬렌관 재건축 비용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건축이나 시설 보수의 기준을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장기 공간 발전 계획인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재건축 비용이 거액이기 때문에 사전 계획 후 수행을 위한 다양한 재정 마련 및 기부금 모금 등을 고려한다고 답변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필요한 건물에 대한 안전을 발제하고 예상된 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산정하여 진행되는 형태인지 확인하다. - 예산팀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공간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인공지능대학이나 신산업융합대학의 경우는 신설 이후 시간이 지났음에도 별도 단대 건물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다. 공간 관련하여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학생 의견 반영 여부를 문의하다. - 예산팀장이 예산 부서에서는 명확히 답을 드리기 어려움을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 요구안이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었으면 하며, 학생 요구안에서 공간 부족이 계속 논의되고 있음을 강조하다. EWC 건축이 지연되는 사유를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재건축 일정은 인허가 절차 등으로 학교 계획사항뿐 아니라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 사안임을 답하며, 시급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변수들로 인해 지연되는 측면임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과선교 점용료 납부에 대해 추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소멸시효 등을 사유로 수년치 사용료가 부과된 상황과 28년부터는 매년 당해연도분을 납부하게 될 예정임을 설명하다. - 위원장이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동일 자료를 비치할 예정으로 2차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회의 때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예산팀 외에도 요구안 관련 사안은 의견 전달하고자 함을 발언하다. 2번 안건에 대해서 상정 여부를 논의하고 의결 절차 진행을 제안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아직 질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폐회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하다. - 위원장이 질문 종료의 선언은 개별위원이 하는 것은 아니고, 심의에 대한 상황 판단하에 진행상 적절한 경우 필요함을 안내하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논의할 시간을 마련할 것임을 부연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회의 종료시간에 대해 동의한 적도 없고, 작년에 펄리버스터로 인해 회의 시간을 제한하려는 상황으로 보이나 작년 위원장이 회의시간은 목표시간이지 예정시간이 아님을 언급한 바 있다고 발언하며, 예산안 심의를 2차 회의로 이월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다른 학교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하다. - 학생처장이 취지는 이해하지만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였음을 설명하다. - 예산팀장이 안건에 대해 충분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는데 2차로 안건을 이월해야 하는 실익이 무엇인지 문의하다. 학생위원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은 이해하나 2차 회의 시 예산안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함에 따라 등록금 책정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설명하다. 2차 회의에는 등록금 책정에 대한 논의를 목표 시간 내 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가장 보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심의조차 끝나지 않았다는 의견이었고, 적어도 2차 회의 전에 등록금 책정 관련 자료를 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설명해 줄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다. - 위원장이 과거의 회의용 자료 전달 방식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부분인지 확인하다. - 예산팀장이 현행처럼 메일로 사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인지 대면하여 설명 듣기를 원하는 것인지 재차 확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심의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은 부담임을 이야기하며, 구체적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고 설명 듣기를 희망하다.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	-----	-----

	- 위원장이 과거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가 논의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간호대학 공동대표가 안건 외 학생위원의 논의사항으로 시간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위원은 공문이나 호소문을 통해 의견을 전달해야만 하고, 첫 대면 현장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주시사 요청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결국 약속받은 사안은 없다고 여겨지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일정을 감안하여 2차 회의 전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순서 변경과 관련하여 예산안이 확정되는 시기에 학생위원과 절차 합의를 토대로 진행하기를 희망하다. - 교무처장이 2025년 학생위원 의견을 반영해서 위계에 따른 안건 순서를 현재 부속병원회계 안건을 먼저 심의하는 형태로 순서를 변경하고 진행한 사례를 들어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합리적인 의견은 반영하고 있음을 부연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요구안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학생위원의 입장을 고려해 주기를 요청하다. - 위원장이 2026학년도 교비회계의 예산(안) 의결을 제안하다.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대학원 학생회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8인이 찬성하고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경영대학 공동대표, 간호대학 공동대표 총 5인이 기권*하여 2026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다. (* 위 기권은 표결 거부로 인한 기권임.) - 위원장이 이어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 의결을 제안하다.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대학원 학생회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8인이 찬성하고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경영대학 공동대표, 간호대학 공동대표 총 5인이 기권*하여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을 의결하다. (* 위 기권은 표결 거부로 인한 기권임.)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폐회 - 위원장이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					
확 인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26년 1월 21일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이준엽		위 원	이승연	
	위 원	강보아		위 원	이주연	
	위 원	백주현		위 원	이창온	
	위 원	서하연		위 원	장현수	
	위 원	신동희		위 원	정예진	
	위 원	오민서		위 원	최정아	
	위 원	윤정원				
작 성 자	예산팀 남 아 영					